

# 고흥, 스마트축산 구현·한우 브랜드 육성 '속도'

## 군, '지역 성장지점' ICT 기반 축산단지 조성 22일까지 입주자 모집... "산업 경쟁력 강화"

고흥군이 첨단 스마트축산 구현과 유자 꿀 고품 한우 브랜드 육성에 나선다. 11일 고흥군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단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ICT 기반 축산단지 조성을 통해 축산업의 규모화·집단지화를 추진하

고, 청년농·타지역 농가 등의 유입을 통해 축산업 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단지의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고흥한우스마트팜 영농조합 법인이 운영 및 관리를 할 계획이다. 모집 규모는 총 26동으로, 입주 대상자

는 도덕면 신양리 일원에 조성 중인 스마트축산 ICT 단지에서 한우(비육우·번식우) 사육을 위한 축사를 신축해 운영하게 된다. 입주자는 약 4220㎡(축사 면적 670평)의 부지를 사용하게 되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을 통해 축사, 스마트 축산 장비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축사 부지 사용기간은 5년이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매각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50세 이하의

고흥군민 또는 사용·수의 허가 전까지 고흥으로 전입이 가능한 자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존 축산농가와 청년농, 타지역 농가 등이다. 다만 기존 축사를 계속 운영하는 경우 등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 대상자 선발은 서류평가(100%)로 진행되며, 축산업 운영계획의 구체성, ICT 활용 계획,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18~22일 고흥군 축산정책과 축산지원팀을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스마트축산 ICT 단지는 청년농과 타 지역 농가 유입을 기반으로 한 지역 축산업의 새로운 성장 지점이다"며 "체계적인 운영과 '유자꿀 고흥한우' 브랜드 연계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 장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내달 7일까지...과태료 등 조치

장흥군은 6월 7일까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이 기간동안 상품권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 점검 및 현장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사행업 등)을 영위하는 행위,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방식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의심 거래 추출 및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사례 등을 토대로 해당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 등 행정·재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카드·모바일 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해 카드·모바일 결제 시 후캐시백 이벤트 등 다양한 추가 할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상시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확대해 판매하고 있으며, 3월부터 4월까지 후캐시백 2% 적립 행사를 진행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준비 박차

### 조직위, 전 분야 점검·보완 '국제 해양관광 허브' 도약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개막 120여 일을 앞두고 성공개최를 위해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 분야 점검과 보완을 강화하며 성공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섬박람회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전시·체험·휴양이 결합된 복합형 국제 해양관광 행사로 기획돼, 섬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여수를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행사장은 돌산 진모지구에 조성되며 '섬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한

8개 전시관과 랜드마크인 '주제섬'이 들어선다. 미디어아트와 몰입형 콘텐츠를 활용해 관람객이 섬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개도와 금오도 등 부흥사상에서는 캠핑, 트레킹, 해양레저, 웰니스 프로그램 등 체류형 관광 콘텐츠가 운영된다. 여수엑스포장에서는 국제 학술행사와 지역 연계 축제 40여개가 함께 열려 문화·산업·관광이 결합된 복합형 행사로 꾸며진다. 교통 대책도 강화, 임시주차장 약 9700면을 확보하고 셔틀버스·시내버스 무료 운영을 확대한다. KTX, 항공편 증편도 추진 중으로, 요트와 도선을 활용한 해상 교통 체계를 도입해 육상 교통 혼잡을 분산할 계획이다. 또 박람회 기간 동안 여객선 운임의



김중기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이 최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섬박람회 준비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수시청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 120여일을 앞두고 성공개최를 위해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 분야 점검과 보완을 강화하며 성공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제공=여수시청

50% 지원을 비롯해 숙박비·여행비 지원, 지역화폐 환급, 체험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단 순 방문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펼쳐진다. 섬의

생태·문화·미래 가치를 집중 조명하는, 세계 최초의 섬 문화 국제박람회로 국비와 도비, 시비 등 703억원이 투입된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곡성, 농어촌기본소득 7일 만에 25억 사용

###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곡성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7일 만에 전체 지급액 71억7000여만원 중 36%인 약 25억7000여만원이 지역 내에서 사용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급은 4월분, 1월분 정기 지급분으로 개인당 30만원이 지급됐다. 또 1월에 기본소득을 신청한 신규 전입자(2025년 12월 2일부터 곡성군 전입자)의 경우 90일 이상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첫 지급이 이뤄졌으며, 기존 거주자 중 3월에 사후 신청한 기존 거주자에게도 최대 3개월분이 소급 지급이 함께 진행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곡성군 지역사랑상품권인 심정상품권 등록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비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곡성=김유민 기자 hnnews1@gwangnam.co.kr

특히 가정의 달과 연휴 기간이 맞물리면서 음식점과 마트, 생활서비스 업종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이번 소비 흐름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에는 개인당 15만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며, 2월 신청 신규 전입자도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높이고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가 최근 광양읍 세룡리 들녘에서 첫 모내기 작업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렸다. 사진제공=광양시청

## 광양, '올해 첫 모내기' 조생종 벼 첫 이앙

광양시가 최근 광양읍 세룡리 들녘에서 첫 모내기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렸다. 현장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해 지역 농업인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모내기 작업을 함께하고 영농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기존에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히토메보레'로, 안정적인 생산성과 소비자 선호도를 바탕으로 지역 농가에서 꾸준히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다. 최근 일교차 확대와 불규칙한 강수 등 기상 여건 변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 경영 부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 농가들은 작기 영농을 위해 모내기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지역 내 논을 중

심으로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모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벼 재배에는 지역 농가 2707명이 참여해 약 982ha 규모로 재배할 예정이며, 주요 재배 품종은 히토메보레와 새청무 등이다. 시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벼 재배를 지원하기 위해 벼 상자도 공급 지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수도작 드론 방제, 비료 살포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 순천, 신대지구 교량 정밀점검·보수

순천시는 신대지구 내 생태회랑1교, 생태회랑5교, 녹도1교 등 3개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후속 보수공사를 추진한다.



시가 최근 대상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교량 모두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와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일부 경미한 손상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별 주요 조치사항을 보면, 생태회랑1교는 교대 균열부에 대한 주입보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생태회랑5교는 교대 표면 보수 등 경미한 손상을 정비하고, 진동사용성 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이용자인내를 위한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녹도1교는 상부 방수층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우선 보수 가능 계

## 보성,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범위 확대

### 주유소·LPG 충전소 가능

보성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지역 내 모든 주유소와 LPG 충전소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관련 지침 변경에 따라 이용 범위가 넓어졌다. 11일 보성군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관내 주유소 및 LPG 충전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급분은 물론,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지원금까지 차량 연료비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 주유소에 대해서도 오는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한다. 해당 가맹 자격은 9월 1일 자동 종료된다. 보성군은 이번 조치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커진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 밀착형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보성=박형석 기자 eco@gjdream.com

## 구례, 침수 우려지역 선제 대응 맨홀 추락방지시설 등 설치

구례군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도시침수 및 맨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정부의 '상습침수 우려지역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지침에 맞춰 추진됐다. 군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수 조사영역을 실시해 설치 대상지를 파악했다. 올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2월부터 봉동, 봉서, 봉남, 봉북 등 4개 지구로 사업 구간을 나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했으며, 현재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설치 대상은 도시침수 우려지역 내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맨홀 1400여개소다.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집중호우로 수압이 상승해 맨홀 뚜껑이 열리더라도 보행자의 추락을 막는 안전장치로, 인명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 군은 남은 공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다가오는 장마철 군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맨홀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장마 전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설치를 완료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